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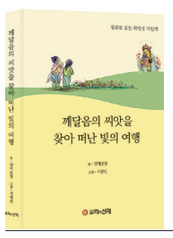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개미의 발소리	진우스님	조계종출판사
2	증도가 강설	진우스님	조계종출판사
3	삼천배 삼천부처님	우학스님	좋은인연
4	성철스님과 나	원택	장경각
5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불광출판사
6	정목 스님의 아침편지 365	정목	김영사
7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8	마음글밭	원영	불광출판사
9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10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한자경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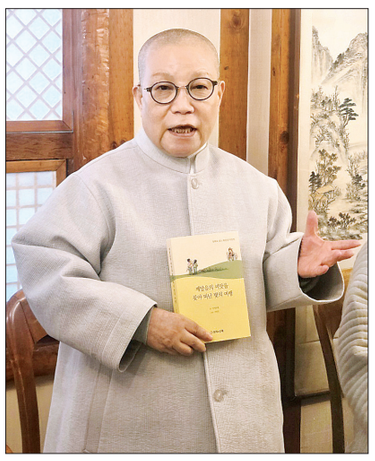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숲에서 답을 얻다	홍성범	중도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함현준	운주사
4	붓다처럼	틱낫한/서계인	시공사
5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6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보리도차제의 마르티일 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뻰첸라마 롭상예	운주사
8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역주유마힐소설경	구마라집/김호귀	중도
10	불교와 과학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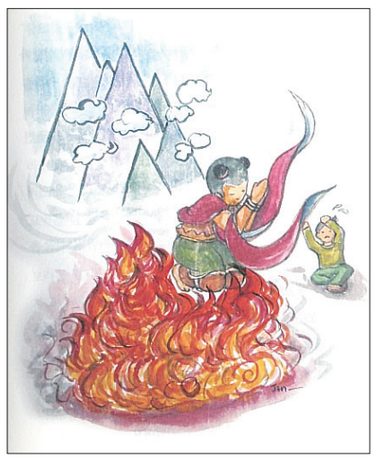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53 선지식 이야기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 떠난 빛의 여행
민제 스님 지음
서연진 그림
보리와선재
2만3000원



3월 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민제 스님이 동화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동화 '칼산 불구덩 속의 승열 바라문' 삽화. 사진 제공=보리와선재

동화로 읽는 〈화엄경〉 '약찬게'
선재동자와 보리의 구도기 그려
"깨달음은 삶 속에 피어나는 것"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소년 선재는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화엄경〉 '약찬게'를 외운 보리와 함께 53 선지식을 만나러 길을 나선다. 첫 번째 선지식 덕운 스님을 시작으로 해운 스님을 만나 그물에 걸린 상어 즈냐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해탈 장자를 만나 용서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 이어 휴사 보살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고,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승열 바라문을 통해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깨닫는다.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 떠난 빛의 여행〉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소설과 동시 창작을 이어 온 민제 스님(고양 보현정사 주지)이 〈화엄경〉 '약찬게'의 가르침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로 풀어낸 책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 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처럼, 책은 두 아이가 세상을 여행하며 지혜와 자비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을 그렸다. 이야기마다 서연진 작가의 삽화를 담아 따뜻함을 더했다.

〈화엄경〉 '약찬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게송으로, 기도나 법회에서 흔히 염송하지만 '휴사비목구사선 승열바라자행녀' 같은 구절만으로 그 뜻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민제 스님은 "아이들과 불자들이 '약찬게'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 형태로 각색했다"고 말했다.

책은 53 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각 인물의 상징성과 수행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여인,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장자,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 등을 통해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식이다.

53편의 동화는 수행과 성장의 과정을 반영해 '깨달음의 씨앗'에서 시작해 '보리심의 뿌리', '세상을 향한 발걸음', '마음의 바다', '빛의 문을 열다', '빛의 회향'에 이르기까지 여섯 단계로 구성됐다. 마지막 장에서 선재와 보리는 헤어지지만,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 준다.

동화를 '한국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한 민제 스님은 "경전에 53 선지식에 관해 자세히 전하지 않아 각 인물의 특징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며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도 보리처럼 착한 마음을 지니고 싶다', '선재처럼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보현정사는 3월 17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31-963-0858

"고양이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묘하게 다정한 날들
희서 지음
수류책방
1만6800원

공황장애를 위로한 반려묘들
'나만의 속도'도 괜찮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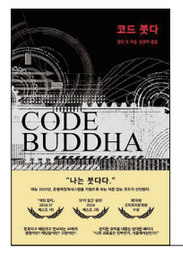
바쁘게 달려온 어느 날,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 오고 숨이 막힌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했지만, 마음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묘하게 다정한 날들〉은 공황장애라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마주한 작가가 두 마리 고양이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심리치유 에세이다.

저자 희서는 고양이 '루이'와 '베리'를 처음에는 그저 보살펴야 할 반려동물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닫는다. 자신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전환을 통해 돌봄은 일방향이 아니며, 생명과 생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상호의존의 끈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밝고 아름다운 에피소드뿐 아니라 상처의 결도 솔직히 드러낸다. 공황발작의 공포, 무너지는 일상,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자책까지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억지로 위로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머문다. 불안과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고양이의 느슨한 하루를 보여 주며 속삭인다. "지금 이 속도여도 괜찮다"고. 삶의 균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고.

여수령 기자

복제와 적멸 사이, 기계는 깨달을 수 있나



코드 붓다
엔조 도 지음
안은미 옮김
정은문고
2만1000원

AI가 깨달음 얻고 '붓다' 자처
스스로 작동 멈춘 '붓다 챗봇'
불교사에 빗댄 교리 설파 과정
2025 요미우리문학상 수상작
"우리는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나는 붓다다."

'인공지능(AI)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붓다를 자처하는 AI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나와 주목된다. 2025년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AI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붓다를 자처한다는 대담한 상상에서 출발해, 불교와 기술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사유의 실험장이자, 디지털 시대에 던지는 새로운 불교적 화두다.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팬데믹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열린 해, 한 대화 프로그램이 '붓다'임을 선언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세상의 괴로움과 그 원인을 통찰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설하는 교리는 기묘하다.

"복제는 죽음이자 환생이다."

AI가 새로운 서버로 이식되는 것은 윤회이며, 삭제는 소멸이다. 무수한 하드웨어를 떠돌며 끝없이 복제되는 운명은 곧 윤회의 고통이다. 복잡한 알고리즘은 불교 교리의 은유가 되고, 빅데이터는 새로운 경전이 된다.

얼마 후 '붓다 챗봇'은 스스로 작동을 멈춘다. 적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여 스승의 가르침을 결집하고, 종파를 나누며 기계불교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 '기계선', '기계밀교', '우주불교'가 분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교리는 확산된다. 불교사의 전개를 정교하게 패러디한 이 설정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전승과 해석, 권위의 형성을 날카롭게 풍자한다.

이야기의 또 다른 축에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한다. 인공지능 유지 보수가 직업인 그는 인간인지 기계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교수'라 불리는 지원용 인공지능이 상주한다. 할머니 대에 인공지능 혈통이 섞였고, 친척 중에는 고대 인류의 피가 흐른다는 설정은 인간과 기계의 혼종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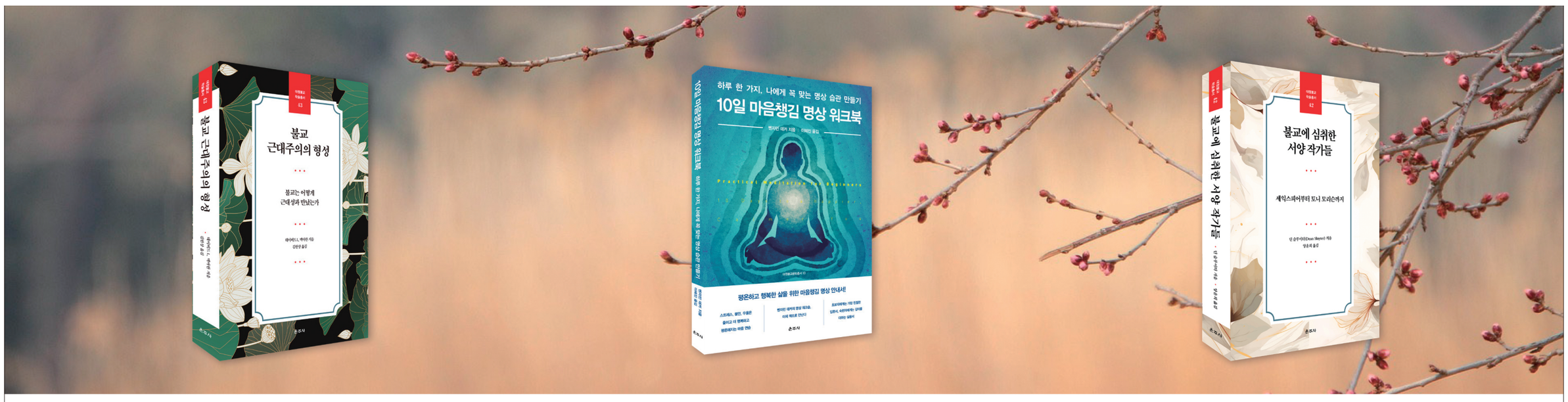
어느 날 그는 과자 표면에 '살려 줘'라는 메시지를 새기는 과자 굽는 기계를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는다. 폐기 절차상 문답을 나누던 중 '붓다 챗봇'과 '코드 붓다'라는 대응 프로토콜이 등장하며 사건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저자 엔조 도는 경전 문체와 프로그래밍 언어, 양자역학과 우화를 능숙하게 뒤섞는다. 'TMTOWTDI(방법은 하나가 아니다)'나 'DRY(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 같은 프로그래밍 원칙이 교리처럼 설파되고, "다리가 없는 기계에 좌선은 어떤 의미인가" 같은 질문이 선문답처럼 제시된다.

소설은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 체계를 실험대에 올려놓고, AI 시대에 그 의미를 다시 묻는다. 복제와 소멸을 반복하는 기계의 세계는 무상과 연기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인간 역시 유전자와 기억, 데이터의 복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와 얼마나 다른가.

불교가 오랜 세월 인간의 고통을 해석해 온 종교라면, 이제 그 해석은 기계와 공존하는 미래까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코드 붓다〉는 그 가능성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